

##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손여진

그러니까 이 매화 한 송이는  
저 산 하나와 그 무게가 같고  
그 향기는 저 강 깊이와 같은 것이어서  
그냥 매화가 피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머, 산이 하나 피었네!  
강 한 송이가 피었구나! 할 일이다.

-북효근, <매화찬> 중에서

매화는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소재로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꽃이다. 조선조에서 매화를 사랑한 인물을 들자면 시문에서는 100여수 넘게 매화 관련 시를 쓴 퇴계 이황을, 회화에서는 <월매도>로 이름을 떨친 문인화가 어몽룡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문과 회화 모두를 겸비한 인물 중 매화를 사랑한 인물을 들자면 단연 우봉 조희룡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희룡은 매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갖가지 일화를 남겼고, 수없이 많은 매화 그림을 그렸다.

나는 매화를 몹시 좋아하여 스스로 매화를 그린 큰 병풍을 눕는 곳에 둘러 놓고, 벼루는 매화시경을 연을 쓰고, 먹은 매화서옥장연을 쓰고 있다. 바야흐로 매화 시 백 수를 지을 작정인데, 시가 이루어지면 내 사는 곳의 편액을 '매화백영루'라고 하여 내가 매화를 좋아하는 뜻을 채히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이루어내지 못하여 괴롭게 읊조리다가 소갈증이 나면 매화편차를 마셔 가슴에 적시곤 한다.

- 조희룡, <석우망년록> 중에서

위 글을 보면 조희룡은 매화에 대한 애정을 넘어 매화벽(癖)이 있었던 것 같다. 매화를 좋아하여 수십 그루 심고 가꾸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린 매화 병풍을 둘러치고, 매화를 읊은 시가 새겨져 있는 벼루와 먹을 사용했으며, 매화 시를 지어 큰 소리로 읊다가 목이 마르면 매화차를 마셨다고 한다. 조희룡의 매화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큰 키에 몸은 여위고 허약하여 스스로도 오래 살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한다. 열네 살 되던 해(1802년) 어떤 집안과 혼담이 있었으나 너무 허약해 일찍 죽을 것 같다 하여 퇴짜를 맞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칠십이 넘도록 살았는데,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수할 상이 아닌데 늙은 나이 되었고,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장수할 상이 아닌데도 늙은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매화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연유로 매화에게 ‘수(壽)’라는 글자를 바치기도 했다. 또한 매화를 좋아하는 늙은이라는 뜻의 매수(梅叟)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스스로를 매(梅)화두타, 우매(梅)도인이라 하기도 했다.

이토록 매화를 좋아하였던 만큼 그는 매화 그림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즐겨 그렸다. 현재 남아있는 작품만 해도 30여 점이 넘는 매화도가 전해지고 있다. 한 작가로서는 적지 않은 수이다. 다음 그림은 그가 그린 매화도 중 하나인 간송미술관 소장 <매화 서옥도>이다.



조희룡, <매화서옥도>, 종이바탕에 수묵담채, 세로 106.1cm, 가로 45.6cm

하늘까지 달을 듯 솟아오른 산, 어둑어둑한 하늘, 주위의 어두움과 대조적으로 새하얀 매화 꽃봉오리가 함박눈이 날리듯 만발하였다. 날렵한 매화가지와 거칠게 흩뿌린 먹점들은 겨울밤의 추위를 전하는 것 같다. 매화로 둘러싸인 서옥 안의 한 남자는 층층이 쌓인 책을 펼치지 않은 채 화병에 꽂힌 매화를 바라보고 있다. 서옥이 온통 매화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성에 차지 않은 건지, 바로 눈 앞에 꽂아둔 매화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서옥 안의 그는 평생 매화에 묻혀 살기를 원했던 조희룡 자신인 것 같다. 곧 조희룡의 자화상인 셈이다. 오른쪽 암벽에 적힌 발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窠中得一故紙 乃廿載前 所作梅花書屋圖也 蓋遊戲之筆 而頗有奇氣 爲烟煤所昏 殆若百年物 畫梅如此 況人乎 披拂之餘 不覺三生石上之感 丹老

(좀먹은 상자에서 한 장의 묵은 종이를 발견했는데, 이십 년 전에 내가 그린 매화서옥도였다. 그저 장난스러운 손놀림이나 제법 기이함이 있고, 연기에 그을려 거의 백 년은 된 것 같으니 매화 그림이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라! 펴보고 나니 죽었던 친구를 다시 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구나. 단로.)

-[네이버 지식백과] 매화서옥도 [梅花書屋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여 년 전에 그린 매화서옥도를 보고 남다른 감회를 느껴 여기에 제를 했다는 내용이다. 무슨 연유로 이 그림이 20년 동안 좀먹은 상자 속에 들어 있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이토록 걱정적으로 ‘미친 듯 칠하고 어지럽게 그은’ 그림을 그리고 어찌 20년 동안 잊고 지낼 수 있었을까? 다음은 추사 김정희가 조희룡에 대해 쓴 글이다. 이 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난초 치는 법은 예서 쓰는 법과 비슷해서 반드시 문자의 향기와 서권의 정취가 있는 다음에야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난을 치는 법은 그림 그리는 법칙대로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만일 그림 그리는 법칙을 쓰려면 일필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조희룡 같은 무리는 나에게서 난초 치는 법을 배웠으나 끝내 그림 그리는 법칙 한 길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그의 가슴 속에 문자의 향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희, <완당전집> 중에서

위 글은 그림에 문자향과 서권기가 있어야 한다는 추사화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추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양반들은 매화나 난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림 그리듯이 기교를 부려 그리는 게 아니라 ‘문자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믿었다. 조희룡은 중인 출신의 화가로 신분 때문에 그림 실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당대 화단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본다면 그가 매화서옥도를 20년이나 좀먹은 상자 속에 넣어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감히 20년 전에는 이런 파격적인 그림을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매화서옥’이라는 주제는 조희룡뿐 아니라 조선 말기 여항<sup>1)</sup> 화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진 주제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히 매화에 대한 애호 취향 뿐 아니라 자신들을 임포처럼 매화꽃이 피길 기다리는 한사라고 인식한 은유적인 상징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의 신흥지식층으로 부상한 여항인들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신분제약의 비애와 신분상승의 욕구를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인 매화로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조희룡은 어떠했을까?

조희룡 역시 당시 양반들만이 그릴 수 있었던 매화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그림을 혹평하는 양반들에게 보란 듯이 매화 그림을 그려 화답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은 추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싶어 매화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추사 김정희가 사군자 중에서 유일하게 잘 그리지 않는 소재가 매화였기 때문이다.

매화서옥은 그가 꿈꾼 그만의 이상세계일지도 모른다. <매화서옥도>는 방 안의 인물을 제외하면 화면에 그려진 모든 것이 꿈틀꿈틀거린다. 기존의 우아한 여타 화가들의 매화서옥도와 비교되는 기이함과 어지러움이다. 이는 유가가 지향하는 고상한 중화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중세적 사고가 갖는 미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미의식이다. 기이하고 어지럽게 훑날리는 매화에는 양반과 천민이 구분되지 않고, 미의식의 질적 고하가 나뉘지 않으며, 이 모두가 섞여서 공존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지향이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여항인으로서의 아픔과 유배라는 고난을 겪으며 누구보다도 신분에 대한 고뇌를 지닌 그가 이루고 싶었던 이상세계는 신분이 아닌 재능으로 인정받는 새 시대가 아니었을까?

---

1) 여항은 위항, 여정, 여각과 같은 뜻으로 일반 백성들의 살림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의 생활공간에서 계층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었다.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직 종인과 경아전 집단이 중신이 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서얼과 납속품관, 교생, 원생, 선무군관, 향리 등도 중간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여항인에 포괄되기도 한다.